



---

# 미-중 무역 분쟁과 구미지역 시사점

---



2018. 09.

# 미-중 무역 분쟁과 구미지역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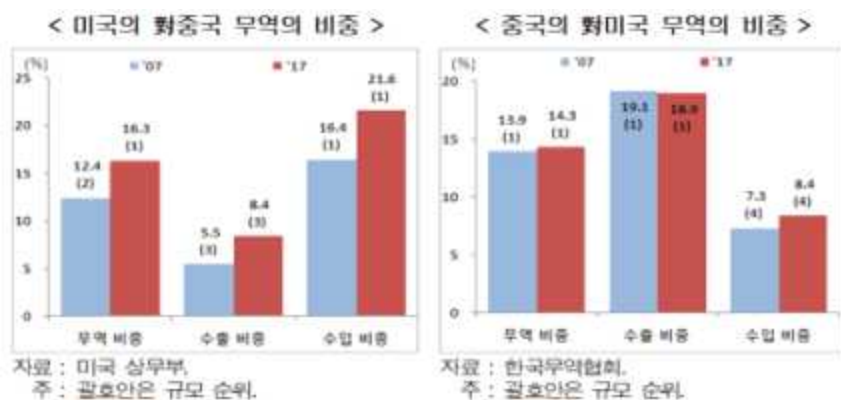
## 1 미-중 무역 분쟁 개요

### □ 개요

-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의 對美 지재권 침해에 대한 美 통상법 301조 조사 지시와 함께 미-중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
  - 미국은 대중 제재의 주요 이유로 중국의 불공정한 교역 및 투자 형태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기술혁신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에게 피해를 야기했음을 주장
- 미국의 對中 수입 제재에 대해 중국이 전면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점증
  - 중국은 미국의 301조에 근거한 일방적인 조치가 WTO 분쟁해결규정 23조와 1998년 미국-EU간 301조 관련 패널 규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 또한 중국은 자국의 대외무역법 7조에 근거하여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규모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

### □ 미-중간 무역 현황

- '17년 기준 미-중간 무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 미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은 중국 : '07년 12.4%에서 '17년 16.3%로 확대
  - 중국도 對미국 무역이 가장 큰 비중 차지 : '17년 13.95에서 '17년 14.3%로 확대



## □ 무역 분쟁 일지

### <미 국>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 '통상법 301조'에 따라 美 무역 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강제 기술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 조사 행정명령에 서명

2017년 8월 18일

USTR, 對中 301조 조사 정식 개시

2018년 3월8일

트럼프,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수입산 철강(25%)·알루미늄(10%) 고율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2018년 3월22일

트럼프, 對中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하는 각서 서명

2018년 3월 23일

트럼프, 對中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하는 각서 서명

2018년 4월3일

USTR,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500억 달러 규모 對中 관세 부과 1,300개 품목 발표

2018년 4월5일

트럼프, USTR에 '301조' 관련 對中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부과 지시

2018년 6월15일

미국, 500억 달러 상당 중국 수입품에 25% 고율 관세부과 강행 방침 발표

2018년 6월18일

트럼프,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추가 보복관세 부과 경고

### <중 국>

2017년 8월 15일

상무부, 성명서로 미국 조치 비난

2017년 8월 21일

상무부, 미국 301조 조사에 대응 시사

2018년 3월9일

상무부, "미국이 안보 예외조항 남용하고 다자무역 시스템을 제멋대로 훼손, 국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준 것" 비난

2018년 3월23일

30억 달러 對美 관세부과 품목 발표  
-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와인, 돼지고기 등 7개 종류, 128품목에 15%, 25% 관세 부과 예고  
- 미국의 232조 과세 관련 보복 조치

2018년 4월4일

500억 달러 對美 관세 부과 품목 발표  
- 미국산 대두, 자동차, 항공기, 화학제품 등 14개 종류, 106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 예고  
- 미국의 301조 과세 관련 보복 조치

2018년 4월6일

상무부, 성명서로 미국 조치 비난  
- 미국의 1,000억 달러 추가관세 검토 관련

2018년 6월16일

미국과 대등한 규모, 동등한 강도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 예고

2018년 6월19일

중국 강력한 반격 조치 경고

※ 최근 미국은 오는 24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5,745개 품목에 10%(9/24~), 25%(‘19/01~)의 관세 단계적 부과 발표(‘18. 9. 17)

※ 이에 대응,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 5,206개 품목에 5~10% 관세 부과 예정 발표(‘18. 9. 18)

## 2

## 미-중 무역 분쟁 배경

-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대중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규모와 비중이 확대 추세
  - 중국은 미국에게 있어 가장 큰 무역적자국이며 과거에 비해 그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對中 무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 2017년에는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정도(47.2%) 차지



-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어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 향후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중
    - IMF의 전망에 따르면, 명목 GDP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가 2018년 6.3조 달러에서 2023년 2.9조 달러로 축소
    - 포춘(Fortune)에 따르면, 세계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00년 12개에서 '17년 103개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미국 기업은 동기간에 185개에서 134개로 감소
  - 또한 중국은 고부가 및 고기술 제조업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제조업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

### 3

## 지역경제 영향 및 시사점

### □ 지역경제 영향

-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지역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중국이 전면적인 무역 분쟁에 나서면서 양국의 성장둔화 및 이에 따른 한국의 경제성장 둔화 예상

○ (직접효과) 對 미국·중국 중간재 수출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 영향

⇒ 對中수출 1.1억불, 對美수출 0.9억불 감소 예상(산업부, 4/12 발표)

\* [미-중 상호 관세부과에 따른 산업영향 파급 경로]

①미-중 상호 관세 부과 → ②미-중 상호간 수출 감소 → ③ 對 미국·중국 중간재 수출감소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 감소

### ◇ 구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구미지역의 중간재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對中 제재에 따른 지역 전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구미 對中·對美 수출비중 : 중국 37.4%, 미국 17.9%(‘17말 기준)

\* 對中 중간재 수출 비중 : 전국 78.5%, 구미 55.1%

\* 지역 對中 주요 수출 품목(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對中 제재 품목의 상당부분이 중국 내수용 및 기타 국가 수출용임

· 對中수출 7백만불, 對美수출 6백만불 감소 추정

(단위 : 억불, 2017년 대비)

미→중 (301조 관세부과)			중→미 (보복관세 부과)		
구분	총수출액	감소효과	구분	총수출액	감소효과
한→중 수출	1,421	1.1 (△0.07%)	한→미 수출	686	0.9 (△0.13%)
구미→중 수출	105	0.07	구미→미 수출	50	0.06

○ (간접효과) 미국·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GDP 감소 영향

⇒ 한국의 GDP는 0.02% 감소 예상(한국무역협회, '18.8월)

\* 미-중간 500억 달러 규모의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GDP가 각각 0.1%, 0.2% 감소\*한다고 가정

\* [미-중 상호 관세부과에 따른 GDP 영향 파급 경로]

①미-중 상호 관세 부과 → ②양국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 상대국에 대한 수출 감소 → ③미-중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④한국의 對중·對중 수출 감소 → ⑤한국 GDP 감소

◇ 구미지역에 미치는 영향

· 구미지역 GRDP는 0.0004%(약 100억원)감소 예상

\* 국내 GDP: 1,564조 1,239억원, 구미시 GRDP: 27조 9,319억원(통계청, 2015년 기준)

□ 시사점

○ (단기) 지역기업의 수출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수집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필요

○ (중장기) 지역산업 고도화 기회 및 신규 시장 공략 강화 필요

- 중국산업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속에서 미국의 중국 첨단시장 견제로 중국과의 신기술 경쟁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이를 지역산업 고도화의 기회로 활용 필요

- 중장기적으로 수출품목과 수출지역의 다각화 등을 통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 필요